



3면

"피로 쓴 역사, 허로 못 덮어"

전주매일

2024년 8월 16일 금요일 (음 7월 13일) 제3568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대한 독립 만세”



15일 전북특별자치도청 공연장에서 열린 제79주년 8·15 광복절 경축식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서거석 교육감,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독립유공자 가족, 도내 각계각층의 주요인사, 국군장병, 도민 등 약 900여명의 참석자들이 순국선열들의 고귀한 정신을 되새기며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전북자치도,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

민족 광복의 의미 되새겨

호남 유일 생존 애국지사 기리며 가족에게 위로물품 전달
민족의 독립 향한 뜨거운 열망 담아 만세삼창으로 마무리

전북특별자치도는 15일 오전 10시, 전북도청 공연장에서 제79주년 8·15 광복절 경축식을 성대히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서거석 교육감, 더불어민주당 이성운·이원택 국회의원,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김광석 육군 35사단장, 김영근 전북경찰청장 대행, 김정태 전북상공회의소 회장, 손순욱 동부보훈지청장, 이강안 광복회 전북지부장 등 도내 주요 인사, 국군 장병, 도민 등 약 900명이 참석해 민족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며 깊은 감동을 나누었다.

경축식은 호남 지역에서 유일하게 생존해 있는 이석규 애국지사를 기리기 위한 위로 물품 전달식으로 시작했다.

이석규 애국지사를 대신해 그의 가족 대표가 행사에 참석해 꽃다발과 캐리커처를 전달받았다. 이를 통해 그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이 후손들에게 더욱 깊이 전달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현재 도내 유일 생존 애국지사인 이석규 애국지사는 1943년 광주사범학교 재학 중 학우들과 독서회를 조직해, 독립선언문과 태극기 제작 등 독립운동을 펼쳐가게 되어 육고를 치렀으며, 그 공로

를 인정받아 지난 2010년 대통령 표창 시훈을 받았다.

이러한 광복절 축하 공연에서는 전북도립국악원의 창극단과 관현악단이 '우리가 원하는 우리나라'와 '내 고향 좋을씨고'를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또한, 군산 푸른소리합창단과 관객들이 함께 제35보병사단 군악대의 반주에 맞춰 '광복절 노래'를 합창하며 1945년의 역사적 순간을 되새겼다.

경축식의 마지막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의 선창으로 시작된 만세삼창으로 마무리됐다.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만세를 외치며 민족의 독립을 향한 뜨거운 열망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다.

김관영 도지사는 경축사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분들께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선조들의 도전을 연대 정신을 이어받아 전북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도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오는 10월 전북에서 열리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서 도민과 재외동포가 함께 지역 경제를 확장하겠다"며, "이번 경축식이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전북이 미래로 나아가는 도전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포부를 다짐했다. /이만호 기자

기후위기 대응 능력 키운다

도, 2031년까지 1조5400억원 투입 126개 지방하천 정비
전주천·오수천 국가하천 승격으로 지방비 2500억 절감

기후변화로 인한 극단적인 홍수 등이 날로 빈번해짐에 따라 전북자치도가 지방하천 정비에 비롯해 기후위기 대응 능력을 향상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한다.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최근의 강우 데이터를 반영해 하천 기본계획을 재수립하는 등 급변하는 기후변화로 부터 도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는 2031년까지 지방비 1조5,400억 원을 투입해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도내 126개 지구(전체 길이 1,058km)를 대상으로 하며, 10년 단위로 수립된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에 따른 우선순위에 맞춰 추진된다.

국가하천의 배수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의 경우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 국가사업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이 되는 도내 51개 지방하천 중 15개 지방하천(총사업비 1,233억원)이 반영돼 추진 중에 있으며, 도는 나머지 대상이 되는 지방하천에 대해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전주천과 오수천은 지난해 12월 국가하천으로 승격됨에 따라 국가재정을 통한 신속한 정비가 이뤄진다. 극한 호우에 대비해 약 4,500억 원의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등 체계적인 정비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상관저수지 수문 설치사업도 전주천 국가하천 정비사업에 포함해 추진된다. 전주천의 홍수조절과 유지유량 확보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국비 146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군산 지역의 경우 △구암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산북분구 중점관리지역 침수 예방사업 등 △경포천 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우수 집수시설 및 관로를 개설하거나 배수펌프장 설비를 증설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익산 지역은 산북천 개선복구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하천 기본계획을 순차적으로 재수립한다. 최신 강우 데이터를 반영해 홍수량을 재산정하고, 주요 도심지역은 설계빈도 상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올해는 26억원을 투자해 지

방하천 18개소에 대한 하천 기본계획 재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하도준설, 지정수목 제거, 제방 및 호안 보수 등을 위해 국가 및 지방하천 유지관리비 169억 원을 투입해 하천의 안전성과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재해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2028년까지 168억 원을 투입해 지방하천 내 수문 111개소에 대한 자동화 및 원격제어 시스템을 구축한다. 특별교부세 14억 원으로 전주천, 정읍천 일원에 하천변 진출입구 원격 차단시설을 설치해 집중호우 시 하천 수위 상승으로 인한 하천 이용객의 인명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또, 다른 기후위기가인 극한 가뭄의 경우, 정읍권 생활용수 부족에 대비해 상대적으로 용수량이 풍부한 용담댐의 대체 공급량을 확보한다. 이는 비상시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으로 국가수도 기본계획 반영을 통해 추진되며, 소요예산은 232억원이다.

강해원 환경산업국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강우가 빈번해지면서 올해도 4개 시군 42개 지방하천에 150억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지방하천의 정비를 최대한 확대해 나가고, 기존 자원의 활용을 검토해 기후변화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전북자치도, 특화 공공임대 주택 공모 선정... 2년 연속

국토부 공모에 '고창군' ... 국비 156억원 포함 총 320억원 확보
총 200호 공급... 청년 창업·중기 근로자 맞춤형 주거공간 제공

전북특별자치도는 국토교통부의 '2024년 특화 공공임대주택(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공모에서 고창군이 선정되어, 국비 156억원과 주택도시시기금 164억을 포함해 총 3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공공임대주택 200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전년도 전주시의 70호 공급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이뤄낸 성과로, 지역 청년들의 정착과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창군은 36㎡형 100호와 56㎡형 100호 등 총 200호의 주택을 2027년까지 공급할 예정이며, 이 주택들은 개방형 카페, 세미나실, 창업사무실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과 연계해 청년 창업과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고창군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사업은 청년 창업과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맞춤형 주거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입주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창업인,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근로자이며, 임대료는 시세의 35~90% 수준으로, 월 5만~15만원 사이로 책정될 예정이다. 또한, 임대 기간은 30년으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한다.

전북자치도는 그간 준공된 김제 지평선 지구의 120호를 포함해 도내 총 4개 지구에서 386호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전주 동서화 96호, 팔복동 70호, 김제 백구면 100호) 조성을 추진 중이며, 이번 고창군 선정으로 그 수를 더욱 확대하게 됐다. /이만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대한민국
영예문화관광축제

www.firefly.or.kr

2024 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

제28회
무주방딴불축제

2024.
8/31(토) - 9/8(일)

주최: 무주군
주관: 무주방딴불축제재건위원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방딴불축제재건위원회, 한국관광공사, 전북문화재단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최북로 15
문의: 063)324-2440